



## 미래 육군을 이끌어갈 튼튼한 국방의 초석! 천랑 56기 정예장교 탄생!

“대통령상 수상에 2개의 군번 가진 최현성 소위 등 483명의 정예장교 탄생  
황선영 소위, 외조부 화랑무공훈장 전도수여 받으며 대를 이어 국가에 충성”

제56기 졸업 및 임관식이 지난 3월 3일 서육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충성연병장에서 열렸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외부인사 초청 없이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는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 국방뉴스 SNS(유튜브, 페이스북 / 14:30)를 통해 생중계했다.

이번에 졸업 및 임관하는 3사 56기 사관생도 483명(여군 47명)은 지난 2019년에 입교해 2년 동안 일반전공과 군사학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며, 전공별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학위와 함께 군사학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했다.

이날 영예의 대통령상은 최현성 소위(27세, 男)가 수상하며, 국무총리상은 김영재 소위(26세, 男), 국방부장관상은 김남규 소위(26세, 男)가 받았다.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최현성 소위는 육군 5사단 GOP부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한 경험에 더해 이번에 장교로 임

관하며 2개의 군번을 가지게 됐다. 최 소위는 “처음 부사관으로 육군에 임관할 때부터 군복과 어깨의 태극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는데 장교로 임관하게 된 지금 그 자부심과 긍지가 더 확고해졌다”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야전에서 전우들과 잘 소통하며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 정예장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상자 외에도 여러 신입 장교의 다양한 사연도 눈길을 끌었다. 황선영 소위(25세, 女)는 6·25전쟁에 참전한 수도사단 소속 故 서상안 하사의 손녀로 이날 외조부의 화랑무공훈장을 전도 수여 받았다. 대를 이어 국가에

헌신하는 신입장교 중 박인준 소위(26세, 男)는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조부 故 박영운 중령과 육군 중위로 전역한 아버지 뒤를 이어 육군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아버지와 같은 병과를 선택하고 꾸준히 문무(文武)에 정진해 두각을 드러낸 신입장교도 있다. 최강 소위(24세, 男)는 육군 1115공병여단에 근무하는 아버지 최경수 중령(52세)의 뒤를 이어 공병장교로 임관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에 임관하는 신입장교들은 모두 체력검정과 사격에서 특급 수준을 달성하고, 전산 분야와 무도에서 초단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는 등 육군의 정예장교로서 자질과 소양을 갖췄다.

학교는 지난 1968년 창설된 이후 특수목적대학 겸 사관학교로서 지난 50여년 동안 국가와 군이 요구하는 15만여명의 인재를 배출해 왔으며, ‘미래 육군을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정예장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령 임문택



## 다양한 학교와의 학군교류협약 체결



주무관 김민수

## 사이버전 실습실 'KISTA' 개소

### 미래 전장 대비 사이버전 실습실 마련

지난 12월 23일, 교내 학무관에서 사이버전 실습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고성능 PC와 서버로 구축된 사이버전 실습실은 가상환경 기반으로 최신 공격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단위 콘텐츠 10종과 레드/블루팀이 실전적 공방훈련을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복합 콘텐츠 2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해킹 방어를 목적으로 특별 개발된 콘텐츠와 자율주행 자동차 해킹시뮬레이터를 보유함으로써 학교만의 특화된 사이버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했다.

실습실 내 설치된 모든 콘텐츠는

작동 간 교육자(교수)가 실시간 관찰 및 멘토링이 가능하다. 실습실의 명칭인 KISTA(KAAY

Information Security Training Area)는 사관생도들이 의견을 모아 직접 선정했다. 주무관 박원형



▲ 사이버전 실습실 'KISTA' 개소를 기념하여 학교장(소장 어운태, 첫째 줄 왼쪽에서 4번째) 등 주요직위자, 사관생도가 학무관앞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모집

원서접수 : 2021. 4.26(월) ~ 5.31(월)

- 접수 : 인터넷(www.univapply.co.kr)
- 문의 : www.kaay.mil.kr 054)330-3720~23

2022학년도 정시생도 59기

- 학력 :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 및 2·3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연령 : '97.3.1~'03.2.28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남·여

2023학년도 예비생도 60기

- 학력 : 2·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 3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
- 연령 : '98.3.1~'04.2.29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남·여

"대학생이 지원가능한 편입학사관학교!"

— 호국간성의 요람 —  
육군3사관학교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 충성대신문 제187호 주요 기사

- 04 기획취재 | 송은혜 대위
- 05 생도광장 | 호랑이굴 행사·생도양케이트
- 06 생도광장 | 충성기초군사훈련 포토스케치
- 08 오피니언 | 사회 저명인사 칼럼
- 10 교양 | 건강상식·중국 요리이름이야기
- 11 동문소식 | 동문(同門)의 소리/유명덕
- 12 발전기금 | 발전재단 소식

(사진 제공) 상병 변준연, 일병 노승찬·김민



# 58기 생도 523명, 입학식 개최

58기 사관생도 523명(여생도 55명 포함)이 5주간의 충성기초훈련을 끝내고 지난 2월 19일 입학식을 통해 정식 사관생도가 되었다.

1월 12일에 입교한 58기 생도들은 예방적 격리기간 동안 화상 시스템(Webex)을 통해 학교 역사 및 생도 생활 소개 교육을 받았으며 1월 26일, 가입학식을 시작으로 사관생도로서 갖춰야 할 군인기본자세 체득 및 집중인성교육과 필수 전투기술 이해를 위한 제식, 개인화기, 구급법, 화생방, 20km 행군을 실시했다.

58기 사관생도들의 정식 입학 축하하는 '입학식'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외부 초청 인원 없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국방홍보원(국방뉴스) 유튜브, 페이

스북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학교 전 장병과 선배 사관생도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시작된 행사는 국민의례에 이어 입학 신고 및 선서, 학년장 수여, 학교장 축사, 분열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분열이 시작되자 입교 전의 모습과 달리 능동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행진하는 58기 사관생도들의 모습에 학교 장병과 선배 사관생도들은 아낌없는 찬사와 힘찬 박수로 격려를 보냈다. 한편, 입학한 생도들 가운데 이색경력 소유자가 많아 화제가 되고 있다. 정은수(만 24세, 96년생) 생도는 캐나다 Georgian College를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단국대를 재학 중 장교가 되어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실현하

기 위해 입교하였다. 유학 중 입교한 생도는 총 7명이 있다. 정용성(만 23세, 97년생) 생도는 3사관학교 57기로 재학 중인 쌍둥이 형 정용수 생도의 뒤를 이어 후배 기수로 입학하였고, 강분정(만 23세, 97년

생)생도는 57기 강동현 생도의 여동생으로 남매가 함께 사관생도의 길을 걷게 되었다. 또한, 이날 4학년으로 진학하는 57기 생도 496명(여생도 53명 포함)도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대위 이지수**



▲ 58기 입학생도들이 분열을 하며 사관생도의 멋과 패기를 보여주고 있다.

## 창의 · 융합 · 협력 기반의 통섭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Creativity      Convergence      Cooperation

### 올해 입교한 58기 사관생도부터 적용

#### 1. 들어가는 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유발하고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임이 분명하다. 이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과감한 교육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학교는 「미래 육군을 이끌어 나갈 통섭형 정예장교 양성」을 위한 학교비전 2030 아래 끊임없는 교육혁신 과정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 입교한 58기 사관생도부터 적용될 예정인 제8차 생도 교과과정은 이러한 교육혁신의 산물이다.

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리더가 갖추어야 할 다양한 능력 중에서 창의(Creativity), 융합(Convergence), 협력(Cooperation)을 주요 핵심능력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육군을 주도할 통섭형 인재 양성을 위해 준비되었다.



#### 2. 교과과정의 목표 및 중점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를 이용해 사물이 학습하고 주변과 상호 작용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초지능 사회(super-intelligence society)에서는 인간의 직관과 감성에 기초한 창의력과 상상력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망 등으로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공유하는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의 특성상 다양한 관점의 융·복합적 사고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기계와 로봇들이 사회의 직업들을 대체함에 따라 사회적 교류가 감소하고 인간성과 윤리성의 상실이 우려되는 로봇 중심 사회(robot-based society)에서는 조직의 구성원간, 인간과 기계·로봇간의 상호 협력 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교과

#### 3. 교과과정 주요 혁신

##### 가. 학점체계 개편, 일반학 및 군사학 강화

기존의 교과과정이 가지고 있는 학점체계의 제한사항을 해소하면서 대학 고등교육기관과 장교양성기관이라는 사관학교 핵심가치들을 균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일반학 및 군사학 교육체계를 재정립하여 학점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는 3·4학년의 2년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생도들이 일반학 48학점 이상, 군사학 4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적대학의 학점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도록 학점체계를 개편하였다.

##### 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전공학 과편성

다양한 전공분야에 따른 지식의 과편화를 탈피하고 유사 학문간 지식의 통섭을 위해 전공학과와 통폐합과 융합전공 학과를 신설하였다. 인문학, 사회학, 이학 및 공학 등 4개 학처에 12개 일반전공 과정을 편성하여 전공별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안보환경과 경제변화, 기술혁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공 분야의 학문과 기술을 융합하는 안보통상학 및 로봇공학의 융합전공을 운용한다. 융합전공학과는 학습능력이 우수한 생도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우수 민간대학교와의 학점 교류를 추진하고, 전공분야에 대한 해외연학으로 풍부한 견문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 다. 교과체계 구성

일반학은 창의·융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복잡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상호 소통과 협력의 능력 구비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학처	인문학	사회학	이학	공학
일반전공	영어, 심리, 군사사	경제경영, 정치외교, 법정	컴퓨터, 국방시스템, 화학환경	기계, 전자, 건설
융합전공	안보통상학		로봇공학	
전문분야	연합직전, 심리전 및 PTSD, 전쟁사 및 군사사	예산 및 조직 관리, 안보 및 국제 정책, 군행정 및 군법	사이버 및 AI, 위게임 및 Big Data, 군환경 및 CBRN	국방 과학 및 Robot, 정보통신 및 Drone, 방호 및 WMD

특히 전공 심화과목과 창의연구 과목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복잡적이고 실제적인 질문들에 관한 집중 탐구와 연구를 통하여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게 된다.

창의연구 과목에서는 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대외 학술대회에 발표함으로써 창의 역량을 개발하게 된다. 아울러 전공과목에 대한 교차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는 선택적 창의·융합과목을 통해 생도들은 다양한 관점을 융합하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군사학 전공과정은 다양한 군사적 지식과 경험의 습득과정을 제공한다. 특히 2~3개 분야의 주제를 융합적으로 구성하는 군사용필수 과목이나 국방 분야별 전문성에 기초하여 과목을 선택하는 군사

선택과목의 경우 플립 러닝(FL) 기법, PBL, 그리고 실험·실습과 연계한 토의 형태로 강의를 제공하여 융합적 사고능력의 배양뿐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학습한다.

#### 4. 맺음말

2021년부터 적용되는 본 교과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는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 교수들을 중원함과 동시에 사이버 교전실습실, 창의융합공학실, 그리고 5G 및 AI 기반의 원격교육 플랫폼 고도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교육환경 구축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교과과정은 급속히 다변화되는 환경에서 창의적·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의 시작이다.

**대령 두석주**





# 육군3사관학교 52기 현역장교, 의과대학 위탁교육 선발 **송은혜** 대위



▲ 위탁교육 중인 송은혜 대위(왼쪽 두 번째)

**Q** 육군3사관학교 충성대신문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송은혜 대위입니다. 저는 육군3사관학교 52기로 2년간의 생도생활을 마치고 병참 장교로 임관하여 3군수지원사령부와 육군사관학교에서 소대장과 1·3종 보급장교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위탁교육 의과대학 과정에 선발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본과 1학년으로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본과 2학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학교에 직접 지원을 해서 학교의 입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시험은 학교에 따라 서류와 면접만 진행되는 경우도 시험을 봐서 점수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 선발에서 떨어지면 위탁교육 과정도 취소될 수 있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의과대학 위탁교육 과정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가요?

믿음을 갖고 훈련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군의관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현재는 어떤 생활을 하는지, 일과가 궁금합니다.

**A** 2020년에는 사이버 강의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시험이나 다른 실습들은 원래 커리큘럼대로 현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의대는 일반적인 다른 대학과는 다르게 시간표가 정해져서 나옵니다. 대부분 아침 8시 30분부터 수업을 시작하고 오후가 되어서 수업을 마칩니다. 수업 중간 중간에는 미생물 실습, 조직학 실습, 해부학 실습 등 다양한 실습수업을 진행하고, 오후 수업을 마치고는 병원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현재 생활은 특별할 것 없이 일어나서 공부하고 밥 먹고 다시 공부하는 반복되는 나날의 연속입니다.

**Q** 생도시절 가지고 있는 특별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A**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나는 추억은 독도법 훈련입니다. 영천의 뜨거운 여름 햇빛 아래에서 같은 조 동기와 함께 좌표를 찾아다녔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가서 과수원의 전기 울타리를 실수로 건드려 전기의 뜨거운 맛을 느껴보기도 하고 불빛 하나 없는 야간에 산골짜기를 타고 산 아래까지 열심히 내려가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효사로 길을 한참 헤매다 흠바닥에 떨어진 자두를 발견해서 씻지도 않고 먹었을 때 그 어떤 음식보다도 달고 맛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억중에서도 가장 생각이 납니다. 여담으로 그때 먹었던 자두가 계속 생각나서 훈련이 끝나고 여름방학 때 자두를 사 먹었는데 그때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와 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군에는 다양한 종류의 전공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정형외과, 일반외과, 응급의학과 전공의처럼 훈련

## 장병들과 함께 소통하는 군의관을 꿈꾼다!



“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본과 1학년으로 위탁교육 중인 송은혜 대위는 육군3사관학교 52기 출신으로 2017년 소위로 임관 후 3군수지원사령부 소대장, 육군3사관학교 1·3종 보급장교로 임무를 수행했다. 2020년 위탁교육생 선발모집에 지원, 의과대학 위탁교육에 선발되었고 이후 교육과정(의대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거쳐 군의관으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Q** 의과대학 위탁교육을 위해 준비하는 세부적인 과정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구분	일시	장소	비고
①공고 및 지원서 접수	전반기(통상 6월)		
②자격검증심사(서류심사)	매년 위탁교육 선발계획참조	절차별 시행 장소와 세부적인 절차는 육군 위탁교육선발 계획 참조	
③어학평가(ALC-PT)			
④면접평가			전문학위 국외군사
⑤최종선발			

▲ 위탁교육선발일정 및 선발절차

**A** 1차는 서류전형으로, 서류전형은 지금까지 받아온 평정점수, 신입 장교 지휘참모과정 성적, 생도시절 받은 훈육점수, 영어 자격증 점수, 추가로 가지고 있는 각종 자격증과 상장 등을 심사합니다. 생도생활과 교육기간, 군 생활을 통해 쌓아온 모든 것들이 평가되기 때문에 평소부터 준비하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차 서류전형에서 통과하게 되면 2차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에서는 특정한 상황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의 생도 생활과 군 생활 동안 자신이 생각해왔던 것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면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위탁교육에 선발되었다고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각 위탁교육 과정에 따라

**A** 저는 처음부터 위탁교육에 선발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임관 1년 차에 위탁 교육에 지원을 결심하고 대대장님께 보고드렸을 때는 승낙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대대장님께서 제가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승인은 해주시겠지만 적어도 1년은 소대장을 경험한 후에 지원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대장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1년 동안 소대장으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지원 의사를 말씀드렸고, 흔쾌히 승낙 해주셨습니다. 서류전형과 면접까지 본 후 두 번 만에 주어진 기회인 만큼 기대를 하며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종 선발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탈락한 이후에는 제 길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후회가 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점을 보완해 다시 한번 지원하였고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Q** 군의관의 꿈은 언제부터 가지게 된 것인가요?

**A** 생도시절 훈련 중 다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훈련에서 뒤쳐졌다는 낙오감과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등 여러 가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의관의 적극적인 진료로 잘 회복되었고 남은 기간 문제없이 훈련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접 경험하면서 제가 장기 군의관이 되어 병사들이 군 의료체계에

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상을 처치할 수 있는 인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군 생활이지만 제가 부대에서 생활하면서 보았던 대부분의 환자들은 골절, 인대 파열 등 정형외과 관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형외과 전공의가 되어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여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들과 소통하면서 힘들게 군 생활하는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군의관이 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군의관을 꿈꾸는 후배들, 그리고 많은 모교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자신감을 가지고 매 순간 꾸준히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가 설명한 준비과정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단순히 위탁교육 선발만을 위해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평정, 훈육점수, 다면평가 등 생도 생활 때부터 부대 생활까지 꾸준히 열심히 해서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평소에 꾸준히 준비해 놓으면 언제 어디서든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현재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가진 것에 안주하는 삶이 아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무관 길진규, 57기기자생도 이경미**

### 호랑이 굴 행사 58기 새끼 호랑이들을 환영하며



2월 10일, 58기 사관생도들을 환영하는 '호랑이 굴 행사'를 진행했다. 생도 34기부터 이어져 오는 전통적인 연례행사로, 충성기초훈련을 마무리하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사관생도들을 격려하는 명예의식이다



'조국, 충용, 명예'의 이름아래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진정한 호국의 간성으로 거듭나기를 선배의 이름으로 뜨겁게 응원한다.



57기 기자생도 이경미, 이용탁

### 문화체육활동부서 소개

충성대신문사에서는 이번 호부터 충성대의 '문화 및 체육활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문화 및 체육활동은 장교로서 필요한 소양을 부여하며, 생도 상호 간 유대를 강화하고 단체정신을 배양함에 목적이 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부서는 학교 응원부인 '시리우스'이다.

올해 9기인 시리우스는 작년에 다시 새롭게 재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리우스는 과거에 폐지되었지만 2019년부터 응원단 경험이 있거나 치어리딩에 관심이 있었던 인원들을 중심으로 응원단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마침 생도시절 시리우스 선배 단장이었던 장달수 전 학교장님의 지원 덕분에 응원부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행사에 시리우스는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무대에 서서 생도들과 교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틀리면 어때 ~ 즐겁게 놀다 오자!'라는 생각으로 무대에서 다 쏟아내고 즐깁니다. 무대에서 생도들의 열띤 반응을 보고 있다면 그동안의 힘든 시간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항상 시리우스의 공연을 보면 화려한 안무가 돋

### 응원부 '시리우스'

보입니다

우선 타 대학교 응원부의 공연들을 평소에 주의 깊게 보다가 하고 싶은 음악이 생기면 영상을 참고해서 안무를 만듭니다. 안무 속지는 평균 1~2주 소요가 되고 이후에는 동선, 디테일, 동작의 유연성을 위해 연습합니다.

학교에 새로운 주인인 58기가 입교했습니다. 시리우스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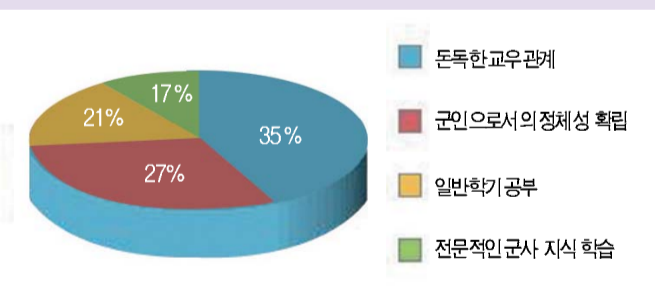
눈빛이 반짝거리고 의지와 열정을 가진 생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리우스를 아끼는 마음과 소속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리우스의 일원으로서 좋은 무대, 재미있는 무대를 만들어보아겠다는 생각으로 지낸다면 어느새 무대 위에서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시리우스의 목표와 방향은?

2021년 시리우스의 목표는 모든 생도가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전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시리우스가 되겠습니다. 2021년에도 시리우스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57기 기자생도 이형민, 박군호, 정용수, 황선관



### 생도 앙케이트 58기 사관생도들에게 선배로서 조언해주고 싶은 점



58기 사관생도들은 정예장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충성대신문사에서는 58기 사관생도들에게 '생도 생활을 먼저 경험해본 선배로서 조언해주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다. 총 575명이 참가한 이번 투표 결과, 독립한 교우 관계(35%),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27%), 일반학기 공부(21%), 전문적인 군사 지식 학습(17%)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장 많은 생도가 58기 사관생

도들에게 돈독한 교우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선배 혹은 동기생들과 돈독한 교우 관계를 통해 회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꼭 만들어 2년간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으로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입학한다고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장교로 임관하는 그 날까지 올바른 군인 정신 확립을 통해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관생도가 되었으면 한다. 세 번째 항목은 일반학기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 지식 학습과

는 별개로 사관학교의 일반학기도 다른 대학들처럼 장기 레이스의 과정이다. 학기당 교과목 수, 학습량, 부여되는 과제가 많아 제한된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의견으로는 전문적인 군사 지식 학습이다. 꾸준한 공부를 통해 군사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이는 임관 후에도 꼭 필요한 것이니 놓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과목들은 원격수업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실제 훈련에서 체득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 있으니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본교재, 교범을 탐독하는 습관을 길러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것이 좋다.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면 더 좋은 환경 속으로 이동하라는 말이 있다. 58기들은 이제 '예비생도'라는 이름표를 떼고 정식 사관생도로 거듭났다. 여러분을 아낌없이 뒷받침해줄 충성대라는 최고의 환경에 하루빨리 적응하여 자기 자신의 성공을 향해 주도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자.

57기 기자생도 신정원, 장석수, 지하은, 황희진





# 사관생도 우리들의 이야기

## 58기 충성기초훈련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군인정신 함양, 군인기본자세 확립 및  
체력증진과 전투기술을 이해하다”



◀ 완전 군장 20km 행군

▲ 행군 간서로를 격려하는  
기훈생도들

▲ 수강 신청

▲ 인성 교육

▲ 체력 측정

▶ 총기 수여식

◀ 성평등 교육

▲ 기입 교식 단체 경례

▲ 개인 화기 사격

58기 사관생도들은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5주간 충성기초훈련을 진행했다. 군인기본자세 및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내적가치 함양토의와  
지휘훈육교육, 기초체력단련을 실시하였으며 개인화기, 구급법,  
화생방 등 훈련을 통해 생도생활의 기본소양을 구비하게 되었다.

상병 변준언  
일병 노승찬, 강건

사설

#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전국이래**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대확산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대응과정에서 부분적인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우리만의 K방역으로 감염병의 확산통제와 치료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백신의 도입과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는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운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가 우리에게 고통만 안겨다 준 것은 아니다.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간과했던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및 시설에 대한 관심, 국가시스템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과 조직의 관리 및 유지, 국가안보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의 유기적인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 노력 등에서 많은 개선과 발전을 이루어 왔다. 또한, 우리는 개인 방역 차원의 대응을 통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가족과 우리 이웃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끼는 몽클한 감동의 순간도 경험했다. 한편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으로 우리는 코로나 19와의 힘겨운 사투를 이겨내고 있으며, 몇 차례 전국적인 대유행의 발생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 없이 차분히 대응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의 방역시스템은 견고해졌다.



광복 이후 고난과 역경으로 굴곡진 현대사를 극복해온 우리는 국난의 현장에서 늘 서로 협심하여 극복해왔다. 지난 1997년 11월, 외환위기로 촉발된 국가 부도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장롱 속의 금붙이를 아낌없이 내놓는 전국적인 금 모으기 운동까지 전개하며, 국제사회의 놀라움 속에 4년 만에 IMF 관리체제를 조기 졸업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많은 국제기구와 학계에서는 UN체제 성립 이후 항상 예외적인 성장과 발전모델을 제시한 대한민국을 경이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6·25전쟁의 폐허에서 모두가 포기할 때,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고도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비치는 양적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내적인 인식과 문화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장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코로나 19가 점차 확산되던 지난해 2월에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수상하였고 이어 9월에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등극하는 등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놀라운 한류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DNA 속에는 항상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열정과 집념이 각인되어있는 듯하다.

우리 충성대인들도 이러한 DNA를 바탕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충성대는 2년간의 고된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아전으로 첫발을 내딛는 56기 생도들을 떠나보내고 이와 동시에 위국헌신의 소명의식으로 새롭게 장교의 길로 입문하려는 58기 생도들을 맞이하였다. 모두에게 힘겨운 이 시기, 어느 영화의 명대사를 되새겨 본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결코 평범하지 않은 새해로 출발한 충성대인 모두가 새해에는 각자의 문제에 답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중령 황수현(군사사학과 교수)

# 생도들이여 밀매가 되자!

## 충성대 칼럼

소령 김우람(기계공학과 교수)



**20년이** 훌쩍 넘은 어느 더운 여름날, 필자는 작은 시골 초등학교의 교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전차 소리와 함께 교실 창문이 살짝 흔들렸고, 수업 중이었지만 슬쩍 교실을 나와 교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새로운 형상의 전차들이 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엔진 소리가 너무 커서 고막이 간지러웠고 육중한 무게 탓에 땅이 진동하였지만, 지나가는 전차들은 웬지 모르게 필자에게 큰 희열을 안겨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필자는 그 전차들이 우리나라에 막 배치되기 시작한 신형 K-1 전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은 끝이 없다. 그렇다면 이런 첨단 무기들은 밀매들만의 전유물이어야 할까? 아니면 그저 특정 병과의 소수 전문 군인들만의 이야기일까? 필자는 생도들에게 미래의 전장은 무기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 자체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설명한다. 물론, 전술과 리더십도 장교에게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리는 무기체계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의 전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세계 주요국가의 무기 개

무기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군사전문가로 성장, 덕업일치를 이루는 사관생도가 되기를 기원한다



흔히들 무기에 관심이 많고 군사 서적, 모형, 군복 등을 취미로 모으는 사람을 ‘밀매(밀리터리 매니아)’라고 한다. 필자는 그날 이후 밀매가 되었다. 사관학교에서도 시간만 나면 도서관에서 무기체계 관련 영어 군사잡지를 찾아서 읽었다. 한창 무기체계에 빠져 있던 시기에는 전차, 전투기, 군함의 실루엣만 보고도 어떤 무기체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습관 덕분에 필자는 자연스럽게 동기생들로부터 무기에 대해 지식이 많은 좀 별난 생도로 인식이 되었다.

전사 지식과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덤이었다. 이후에 기갑 장교로 임관하여 어린 시절 보았던 추억의 K-1 전차를 원 없이 타며 조국의 산하를 누볐다. 밀매로서 쌓은 지식은 소대장 시절 내 리더십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사관학교 교수로서 생도들에게 무기체계를 강의하고 있다. 진정한 덕업일치를 이룬 것이다!

최근 세계의 주요 전장은 다양한 첨단 무기들이 함께 했다. 스텔스 전투기, 무인기와 통합된 최신 공격 헬리콥터, 이지스 구축함, 지구 반대편에서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 원자력 잠수함 등 우리가 니열할 수 있는 첨단 무기들

발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각국의 군사 전략과 동향을 알게 되는 것은 보너스다. 인터넷과 같은 드넓은 지식의 바다에서 세계 각국의 무기 관련 자료를 쉽게 찾을 수는 있지만, 바쁜 생활 중에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바로 여기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밀매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매니아들은 본업이 바쁘다고 절대로 취미생활을 미루지 않는다. 지치지 않는 관심과 애착이 필요하다. 오래전 그날, 전차를 보고 밀매가 된 한 아이가 사관학교에서 무기체계를 강의하는 교수가 되어 덕업일치를 이루었듯이 생도들이 무기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군사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사관생도들이여, 밀매가 되자!



## 존중과 배려로 행복하기

### 사회 저명인사 칼럼

장 경 석(에비역 중장, (사)상호존중과 배려의운동본부 총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최근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을 살펴보자. 2019년 UN 자문기구에서 발표한 행복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872점을 받아 61위를 기록했다. 자살률은 OECD 1위로 하루에 약 40명, 35분에 한 명꼴로 자살하고 있는 사회가 되었다. 또한,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사건, 입양한 어린이를 폭행으로 사망케 한 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누군가를 불행한 상태로 만든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배려, 남에 대한 존중과 배려 등 존중과 배려의 언행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자아존중감(Self-esteem)' 즉 자존감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자아효능감"이다. 우리는 긍정적인 자아효능감을 높이고 부정적인 자아효능감을 줄여야만 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 자신의 내적 생각새 즉, 타고난 인성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

면,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열정적이다 등 많은 인성이 있다. 이러한 인성 중에서 나는 어떠한 인성을 타고난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이 남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인성을 지닌 사람인지를 파악한 후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춘 자신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자신의 타고난 인성을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면 된다. 긍정적 마음을 키우기, 자신을 격려하기, 스트레스 해소하기, 두려움과 당당히 맞서기 등 많은 자아존중감 향상 방법이 있으며, 이 중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받을 수 있는 인성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간혹 자아존중감과 자기애를 혼동하여 자기애에 집

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왜곡된 형태로 오로지 본인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 존중하기의 준비가 끝난 상태라면 이제 눈을 돌려 남에 대한 존중과 배려하기에 대해 알아보자.

존중과 배려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언어를 입 밖으로 내뱉을 시 저속어보다는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남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정감 어린 인사하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누군가에게 인사할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상대방이 존중받는 느낌이 들도록 최선을 다하라.

모든 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행동도 남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소중한 방법이다. 진정한 감사는 나누기이다.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남들과 나누는다면 기쁨이 배가되어 돌아올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에게 존중과 배려하기, 남에게 존중과 배려하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존중과 배려의 인성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장차 호국의 간성으로 성장할 사관생도들이 자기 자신과 남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군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올바른 인성을 구비하길 기대한다.

## 한글이 자랑스러운 이유

### 사회 저명인사 칼럼

장 소 원(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매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조사하면 예외 없이 1위는 이순신 장군이고, 2위는 세종대왕이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조선에서 사용되던 대표적인 문자는 한자였고 한자와 한문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은 소수의 지배층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졌다. 그러다가 세종대왕이 백성들도 쉽게 익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 반포한 후, 조선 건립을 정당화하기 위한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같은 다양한 불교 서적, 그리고 삼강행실도 번역본과 같이 백성을 교화하기 위한 책들을 먼저 훈민정음으로 출판하였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글은 독창적이며 과학적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배운다. 한글, 즉 훈민정음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40여 개의 문자 체계 가운데 만들어진 연도와 창제한 사람, 그리고 창제 의도가 알려진 유일한 문자이다. 기원전에 만들어진 한자나 알파벳에 비하면 15

세기는 비교적 최근에 해당하니 그 점만으로 한글이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 훈민정음이 어떤 점에서 독창적이고 과학적인지 설명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은 얼마나 될까?

문자는 크게 소리글자와 뜻글자로 나뉜다. 소리글자는 알파벳이나 일본의 가나문자와 같이 하나의 음소나 음절의 발음과 연결되어있는 반면, 뜻글자는 한자처럼 글자를 보면 대강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문자이다. (소리글자는 적은 수의 문자로 언어를 적을 수 있으니 편리한 반면 뜻을 짐작할 수는 없고, 뜻글자는 대강의 의미를 짐작할 수는 있는 반면 세상에 존재하는 뜻만큼의 글자가 필요하니 익히기가 매우 어렵다.) 문자의 발달 단계상으로는 상형문자나 췌기문자에서 시작해서 표음문자로 발달해온 것으로 본다.

한글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고 초성, 중성, 종성을 합쳐서 하나의 글자로 만들어 적는, 음소문자인 동시에 음절문자이다. 그런데 자음은

만들 때 그냥 '낫 놓고 기역'을 만든 것이 아니고, 기본 자음자 5개는 그 소리들을 발음할 때 가장 크게 관여하는 발음기관을 본 따 상형문자로 만들었다. 즉 'ㄱ'은 혀가 뿌리 쪽에서 뭉치는 것을 꺾어 표현한 것이고, 'ㄴ'은 그 소리를 내기 위해 윗니가 혀의 끝부분을 눌러 구부러진 모양을 표현한 것이다. 'ㄹ'은 위아래 입술이 붙었다 떨어져야 소리가 나니 두 입술 모양을 네모로 표현한 것이고 'ㅅ'은 그 소리를 내기 위해 공기가 윗니와 아랫니 사이로 빠져나와야 하니 이의 뾰족한 모습을 본뜬 것이며, 'ㅎ'은 목구멍 근처에서 소리가 나므로 목구멍의 둥근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세상에 많은 상형문자가 있지만 이처럼 그 소리를 낼 때 관여하는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든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 바로 이러한 독창성은 세계에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하다. 알파벳의 대문자 A 역시 소머리 모양을 본 따 만든 상형문자이지만 소의 머리와 A가 내는 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더욱 자부심을 가져야 할 점은 기본 자음자를 상

형으로 만든 후, 다시 'ㄱ'과 'ㅋ'가 같은 계열로 발음 위치가 같음을 인식하여 획을 하나 추가하고, 'ㄴ'과 'ㄷ', 'ㅌ'가 같은 계열임을 인식하여 획을 하나씩 더해가는 식으로 모든 자음자를 만들었으니 이처럼 과학적인 체계를 가진 문자는 세상에 다시없을 것이다. 게다가 '천지인'의 원리에 바탕을 둔 3개의 모음자로 한국어의 모든 모음을 표현할 수 있으니 이처럼 경제적이면서 기계화에 최적화된 모음체계 역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애국심만으로 우리 것을 자랑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그 원리와 이치를 똑똑히 알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더 큰 힘을 지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유엔참전국가기념비 탐사기 6화  
고양 필리핀군참전기념비

# 아시아국가 최초의 참전국, 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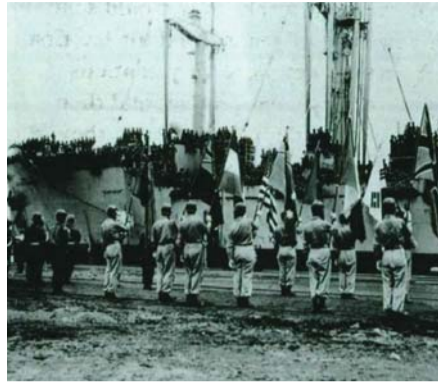
6·25전쟁이 발발하자 가장 먼저 참전한 유엔국은 미국, 영국이었다. 그러자 공산주의자들은 “아시아에서 백인들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런 비난을 삼시간에 잠재운 것은 9월 필리핀의 한국과병 소식이었다. 최초로 참전한 필리핀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경기 고양시로 향했다.

필리핀은 반공주의와 친(親)서방 정책을 견지하였던 나라다. 그래서 필리핀 정부는 북한의 남침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조치를 적극 지지하고 빠른 파병을 결심할 수 있었다.

필리핀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최강의 전력을 보유한 제10대대를 파병하기로 결

정했다. 대대장 아주린 중령을 필두로 ‘필리핀한국원정군(Philippine Expeditionary Force to Korea, PEF TOK)’으로 재편성되어 필리핀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파병식을 갖고 1950년 9월 19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낙동강 방어선에서부터 38도선을 넘어 평양, 군우리까지 진격하였고 1·4후퇴 당시 서울 방어와 1951년 3월 서울 재탈환 작전도 참가했다. 또한, 서부전선의 문산에서부터 중부전선 철의 삼각지대, 동부전선 펀치볼 지역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모든 전선을 누비며,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군, 캐나다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필리핀군의 활약 중 가장 두드러진 순



▲부산에 도착한 필리핀군

간은 바로 울동 전투이다. 1951년 2월 말 한국전선에 투입된 중공군은 철의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병력을 전개하고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중공군과 북한군의 25만 명 규모의 대공세가 시작되었다. 중공군과 가장 맞닿아있는 유타선의 방어를 필리핀대대와 터키여단이 맡았다. 그들이 방어선으로 자리 잡은 연천 북방의 울동은 중공군에게 빼앗기면 국군이 재탈환한 서울이 다시 중공군에 넘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였다. 가장 선두에 있던 필리핀대대는 적의 대공세를 미리 파악하고 민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4월 22일 23시경에는 중공군의 공격이 필리핀대대 전 지역까지 확산되었다. 중공군의 과상 공격은 자정이 넘어서까지 계속되었고 필리핀대대는 중공군의 압력에 다음 능선으로 철수하여 진지를 편성하였다. 필리핀대대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어선을 지켜내었다.

울동 전투에서 필리핀대대는 전사 12

명, 부상 38명, 실종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적 2명을 생포하고 500여 명을 사살 및 부상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날의 전투는 중공군의 주력부대를 저지시켜 인접 부대들이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다. 울동 전투 이후 유엔군은 그들의 책임감과 용맹성을 칭송하며 필리핀군에게 ‘The Fighting Filipinos’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필리핀대대는 1951년 9월부터 1955년 5월까지 1개 보병대대 전투단 연인원 7,420명을 한국전선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112명이 전사 또는 사망하고 299명이 부상을 당했다. 머나먼 땅에서 피 흘려 싸웠고, 이 땅에 영면한 그들을 위해 잠시 묵념을 올렸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들의 희생을 오래도록 기억하기를 바라며 발길을 돌렸다.



▲필리핀군 참전부대 마크를새긴 동판

### 참고자료

『6·25전쟁과 유엔군』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5)



※ 국방정신전력원 블로그에서 더욱 다양한 정신전력 교육용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jungsin3560>  
글/사진. 허호영(국방정신전력원 전문연구원)



필리핀군참전기념비

## 우리 고장 바로 알기(영천) -3

# 한약재의 고장, 영천



이원석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영천시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한약재 유통의 중심지역이며 중풍 치료를 잘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한약재 거래량이 연간 7,000톤, 돈으로 환산하면 500억 원 정도로 국내유통의 30%를 영천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아무리 구하기 어려운 한약재도 영천에서는 구할 수 있다고 할만큼 종류(480여 종)도 다양하다.

영천 지역이 이렇게 약초의 보고인 것은 보현산과 채약산이 산과 들, 구릉지와 강이 조화를 이루어 희귀하고 다양한 약초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소백산과 태백산에서 생산되는 약재는 들

론 인근 경주, 군위 및 경북 북부의 안동·봉화·영주, 심지어 충북 제천과 강원도 원주·인제 등지의 약초도 영천을 경유하여 전국으로 나갈 만큼 영천은 한약재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영천의 한약재 거래업소는 도매상을 포함해 150개소가 성업 중이며 품질이 좋기로 소문나 일본과 홍콩, 미국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시내에 중풍 치료와 관련한 한방 진료 기관이 45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중풍 치료를 위해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다. 영천시에서는 이러한 한방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방산업이 미래지향적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임을 인식하고 이를 결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천한약재전시장

### 영천시 한약축제

2003년 부터 현재까지 영천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영천 한의마을과 영천생약한약유통단지 내에 위치한 한약재전시관에서 체험 및 관람 가능



영천 한의마을



영천시 한약축제의 모습

# 추운 겨울에도 식중독에 걸리나요?

건강상식

국군의무학교 응급간호교관 대위 최순희



찬바람이 지속되는 겨울에 해신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딱 생각나는 메뉴가 있다. 바로 생굴! 하지만 생굴을 먹은 뒤 복통이나 심할 경우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은데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은 바로 노로바이러스다. 노로바이러스균은 1968년 미국 오하이오주 노워크 지방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에서 확인되었다. 지역 이름을 따서 초기에는 노워크(Norwalk) 바이러스라고 불렸으나, 20년 뒤 노로바이러스로 정정되었다. 흔히 식중독이라고 하면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나 노로바이러스는 냉동, 냉장 상태에서 수년 동안 감염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 식중독의 주범이다. 여름 식중독과의 차이점은 식중독균에 오염된 음식은 대부분 부패하거나 냄새가 나는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음식은 부패하지 않고 맛을 봐도 특징적이지 않아 미리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노로바이러스는 12~24시간 잠복기가

있어 음식 섭취 후 반나절에서 이틀 사이에 붉은 설사 이후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은 1~2일 내로 회복하므로 건강상의 큰 문제는 없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탈수증상이 동반되므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바로 뜨거운 물이다. 노로바이러스는 냉장 상태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생존력을 가지고 있지만, 섭씨 85도~100도 이상의 끓는 물에서 1분 이상 노출시 살아남지 못한다. 일반 식중독균이 음식을 끓여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특이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예방은 무엇이었을까?

과일이나 채소를 철저히 씻고 유행 시기

(겨울철)에는 굴을 포함한 날 해신물을 가급적 익혀 먹는 것과 더불어 화장실을 다녀 오거나 음식을 준비하기 전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감염된 환자가 만진 곳의 표면은 소독제로 철저히 소독하고 살균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옷과 이불 등은 즉시 비누를 사용하여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것이 좋으며, 환자의 구토물은 락스 희석액(1,000~5,000ppm)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환자는 회복 후 3일 동안은 음식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예방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발생한 부대는 다른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방문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완쾌 후 청소와 소독을 시행하고 3일 뒤 방문하는 것이 좋다.

사실 노로바이러스는 금방 회복되어 치사율, 사망률은 모두 낮다. 문제는 노로바이러스의 높은 감염력이다.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날씨가 추워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이 소홀해지고 실내 활동이 많아져 사람 간의 전파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전파가 빠르므로 철저히 예방하는 것만이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 오가피주의 전설

사라져가는 중국 요리 이름 이야기 ①

김미 경(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겸임교수)



“중국 음식을 다 먹어보고 죽는 사람은 없다”라고 할 만큼 중국은 많은 종류의 음식이 있다. 이번 호부터는 그 요리 이름 뒤에 있는 이야기를 찾아보는 흥미로운 주제를 소개하려고 한다.

첫 번째 이야기로, 중국에서 여전히 사랑 받고 있는 오가피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오가피주와는 다른 술로, 중국 절강성을 방문한다면 한 번 맛볼 것을 추천한다. 오가피주 이름의 유래에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

아주 오래전에 절강성 서부에 성은 질(鄧)이고 이름은 중화(中和인)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사람이 후덕한 데다가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술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술은 품질이 좋고 맛이 우수했고, 어민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하지만 질중화는 어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물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만든 술이 그들의 병을 없애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자책감을 느꼈다.



하루는 질중화가 술을 파내서 짊어지고 강가로 와서 술을 팔았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구름으로 가득 덮이더니 광풍이 몰아치고 강물의 파도가 용솟음치더니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졌다. 구름과 물 사이에

거대한 오룡이 악랄한 발톱을 펼치더니 강물로 뛰어들어 금색의 작은 용을 잡아 왔고, 작은 용은 공중에서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쳤다. 잠시 후 팍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용은 큰 용을 벗어났고 중화의 옆에 떨어지더니 고운 아가씨로 변했다. 아가씨는 질중화 앞에 꿇어앉아 그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때, 큰 용이 아래로 와서 입이 붉은 오초사(烏梢蛇, 뱀의 일종)로 변했다. 오초사는 공기를 내뿜고 혀를 내두르며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들은 사투를 벌였다. 사투가 끝이 나고 그제서야 아가씨는 질중화에게 이렇게 말하고 물속으로 사라졌다. "저는 본래 해룡왕의 다섯째 공주이고 이름은 가비(佳婢)라고 합니다. 오늘 구원해줘서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번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는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질중화는 늘 하던 대로 불을 피워 술을 쪼다. 갑자기 짙은 기이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는 급히 밖에 있는 술 항아리로 나갔다. 누군가 있어 자세히 보니 바로 낮에 구해주었던 그 가비였다. 질중화는 술 향에 반해서 그녀에게 술 향의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청했다.

"물이 좋으면 술이 맛이 있지요, 이것이 비결이에요 내가 이 몇 가지 약재를 넣었더니 이런 기이한 향기로 만들어졌답니다. 이 술은 맛있기도 하지만 습한 것을 제거하고 근육과 뼈를 잘 풀어 혈액과 경락이 잘 통하게 합니다."

둘은 이 술을 인연으로 결국 부부의 연을 맺어 함께 술을 만드는 사업을 했다. 그들의 술은 달콤한 것 같기도 하고 감칠맛이 있는데다가 순수하기까지 해서 마시는 사람은 좋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하루는 중화가 가비한테 말했다.

"요즘 모두가 이 술을 좋아하고 어민들의 풍습병조차 치료하는데, 이 술에 이름이 없으니 우리 같이 술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내 생각에는 이 술은 당신이 만든 것이니 '오가비타고 지으면 어떻겠소?'라고 하자 '아니요. 내가 누구 집의 가비인가요? 아예 '질중화가가비주'는 신안 강변에서 퍼지게 되었다.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질중화가가비주의 생신은 후세를 거쳐 이어졌지만, 이름은 유래를 잊고 '질중화가가피주(鄧中和五加皮酒)'로 잘못 표기되었고 오늘날까지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 CADET에 깃들어 있는 리더십 덕목

## 동문(同門)의 소리

유명 덕에 대령, 3사 10기, 군인권교육가, 국방 칼럼니스트)



사람들은 저마다 일터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실현한다. 군 장교 역시 군대라는 삶의 터전에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사관생도는 군 간부가 되기 위해 힘든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왜 충성대를 선택했는가? 직업을 위해서인가? 그렇다면 가치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사관생도 생활은 가치목표에 충실한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 지식과 체험으로 다듬어 나가는 최고의 수련 과정이다. 사관생도는 영어로 'CADET'이다. 이 단어에는 사관생도들이 어떤 품성과 역량을 쌓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소중한 의미들이 담겨 있다.

글머리 첫째인 'C'는 인격(Character)

을 의미한다. 인격의 출발은 존중이다. 바 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백악관 직원들에게 "동료를 존중하지 않으면 즉각 해고하겠다"고 말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백악관의 분위기가 백악관은 물론 미국 리더십의 품위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인격은 군인의 리더십을 성공으로 이끌어 준다. 왜냐하면 부하들은 인격적인 상관을 지지하고 도울 태세를 갖추기 때문이다.

두 번째인 'A'는 용기 있는 행동(Action)을 의미한다. 군 간부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늘 선택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용기 있는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의, 진실과 허위, 정직과 부정직,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등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관생도 시절은 용기 있는 행동 발휘를 위해 자신을 훈련 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다.

세 번째 D는 자기 계발(Development)이다. 장교는 부하에게 정신적 지도자임과 동시에 전문적 지식의 전수자가 되어야 한다. 장교의 신념과 의지, 전문지식은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소중한 공공재로 봐야 한다. 유능한 장교는 부하를 살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부단하게 자기 계발을 통해 실력을 쌓아야 한다. 생도 시절부터 자기 계발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을 세워 하나하나 실천해 보기를 권한다.

네 번째의 E는 자기 진단(Evaluation)이다. 자기 진단은 방향성을 유지하고 오류와 실패를 예방해 준다. 사람들 대부분은 앞만 생각하고 달리지만 뒤돌아보거나 현재를 살펴보는 데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생도 시절부터 자기 진단의 습성을 길러보자. 생각, 생활습관, 태도, 학습 측면에서 자기 진단 메뉴얼을 만들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동료에게도 조언을 구하는 지혜도 발휘해 보자.

끝으로 T는 신뢰(Trust)를 의미한다. 군인의 신뢰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동료와 부하들이 자신에 거는 일종의 기대치이다. 장교의 꿈을 가진 사관생도의 신뢰도 역시 공공재라는 강한 성격을 가진다. 그것은 자신의 신뢰도가 군대 조직과 구성원들에게도 믿음과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은 곧 군의 단결과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관생도는 생도 시절부터 가깝게는 동료부터 시작해 훈육관, 교수에게 신뢰를 받도록 자신에게 정직하고 성실하며, 실력을 연마하는 일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 총동문화 임원진 국립현충원 참배

지난 1월 6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총동문화장(14기 한동주)을 비롯한 임원진 10명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 전우들의 넋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3사 총동문화



▲ 국립현충원 참배 중인 총동문화 임원진 일동



▲ 국립현충원 참배 후 단체 사진

## (주)창보종합건설 회장 맹진호 동문(47), 사랑의 쌀 전달



지난 12월 맹진호 동문은 연말을 맞아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주민센터에 사랑의 쌀 10kg 500포(1,450만원 상당)를 전달하여 동문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3사 총동문화

◀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왼쪽 세 번째)과 (주)창보종합건설 맹진호 회장(왼쪽 두 번째) 권성욱 고문(왼쪽) 박천화 고문(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정경조 동문(11기), (사)나라사랑 포병연합 10대 회장 취임



▲ 포병연합전우회 회장으로 취임한 정경조동문(좌)

3사 총동문화

## 최춘식 의원(15기),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수상



▲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한 최춘식 의원

최춘식 의원이 미래 발전에 공헌한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의정 부문)'을 수상했다.

또한, 4차 혁명 시대의 대한민국 혁신 성장브랜드 성장동력 가치에 크게 기여한 인물을 심사하는 상인 '2020 대한민국 글로벌 브랜드대상' 정치 분야에서 수상자로 선정되어 동문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3사 총동문화

## 故 강현경 중위 추모비 이전

故 강현경 중위 추모비를 고양시 화전동에서 원당동으로 이전했다. 이번 이전은 추모비 소재 군부대인 30사단이 해

체·이전하며 같이 이루어졌으며, 현충시설 관리 사업을 함께 하는 총동문화(3기 동기회)와 경기북부보훈지청의 긴밀한 협조로 원활히 이전할 수 있었다.



▲ 이전된故 강현경 중위 추모비(고양시 원당동 소재)

3사 총동문화

\* 강현경 중위는 1971년 문산 지역침투무장공비 4명을 사살했지만 총상을 입고 결국 숨겨 추무무공훈장이 수여됐다

## 급성백혈병 동문 돕기 운동 전개, '3,000여만 원 전달' 동문사랑 실천



지난 1월, 3사모 회장(이철성, 9기)을 주축으로 동문들이 자발적인 모금 운동을 전개하여 급성백혈병 초기 진단을 받은 특전사 이한민 소령(37기)에게 3,000여만 원을 전달하는 훈훈한 미담이 전해졌다. 현종민 후배(36기), 특전사 이규호 소령(36기)이 협심하여 모금 운동을 진행하였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모아 동문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

3사 총동문화

# 학교 발전재단 소식

## 2021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0. 12. 23 ~ '21. 2. 28까지 기부현황입니다.

※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총 기부액)

**총 자산 81억 3,900만원**(2021.2.28 기준)

### ■ 단체/우인

55기 동기회 500(3,500), 56기 동기회 3,000 / 조재묵 5(215)

### ■ 3사관학교 발전과 함께하는 군간부

정한기(육사#39) 1(120), 이희범(육사#41) 2(398), 최완규(육사#44) 10(121), 여운태(육사#45) 10(110), 신상범(육사#41) 1(1), 김호길(육사#48) 2(47), 두석주(육사#51) 3(188), 이우진(육사#54) 2(58), 박기홍(육사#55) 2(118), 조상근(육사#56) 2(131), 변용성(육사#58) 2(97), 손창호(육사#58) 2(88), 이귀현(육사#58) 2(91), 이주실(육사#58) 2(76), 김대영(육사#59) 2(164), 이웅수(육사#60) 5(200), 김진찬(육사#61) 2(61), 홍희중(육사#61) 2(93), 이한우(육사#63) 2(21), 오민경(육사#63) 2(36), 오보진(육사#63) 2(14), 홍인재(육사#65) 2(26), 문준호(육사#67) 2(39), 이찬우(육사#68) 2(36), 권성진(육사#69) 2(24), 한덕수(육사#70) 2(103), 남기웅(육사#72) 2(8), 구희곤(육사#72) 2(100), 서필석(육사#74) 2(8), 임문택(육사#74) 2(2), 이두진(육사#75) 2(14), 박종철(육사#77) 2(26), 송경재(육사#77) 2(12), 김재윤(육사#77) 2(51), 김광윤(육사#77) 1(45), 이종민(육사#77) 2(19), 김나람(육사#77) 2(27), 정우람(육사#77) 2(14), 이세훈(육사#77) 2(19), 홍현신(육사#77) 2(17), 나상철(육사#77) 2(11), 윤정훈(육사#77) 2(23), 이선호(육사#77) 2(6), 최재호(육사#77) 2(120), 최용식(육사#77) 2(22), 이준수(육사#77) 2(104), 김기호(육사#77) 2(4), 예한석(육사#77) 2(22), 윤경주(육사#77) 2(10), 임도현(육사#77) 2(99), 구주현(육사#77) 2(22), 박수영(육사#77) 2(14), 성현애(육사#77) 2(42), 강진선(육사#77) 2(8), 전여울(육사#77) 2(51), 심정현(육사#77) 2(30), 김소현(육사#77) 2(15), 김형태(육사#77) 2(50), 강찬영(육사#77) 2(26), 최윤정(육사#77) 2(35), 송소연(육사#77) 2(16), 이대희(육사#77) 2(22)

▶ **부사관**: 진정철(원사) 2(88), 이명관(하사) 2(7)

▶ **군무원**: 김인수 2(32), 류재운 2(188), 안영주 2(38), 양성우 2(60), 유정호 2(13), 정혜란 2(17)

### ■ 졸업·재학생도 부모('20.12.23~'21.2.28기부명단)

▶ **졸업생 부모**(졸업기수/관계)

조경해(#45 황정태 모) 15(780), 성동모(#50 성열환 부) 6(194),

안순봉(#51 박상웅 모) 20(330), 윤우상(#51 윤형민 부) 2(84), 김현미(#52 오치원 모) 2(42), 이영미(#52 황성규 모) 6(280), 정정화(#52 조강현 모) 3(336), 박일심(#53 정필승 모) 4(114), 유명일(#53 유준연 부) 10(30), 이영빈(#53 오경철 모) 2(40), 강성봉(#53 강주환 부) 1(186), 조정숙(#53 유영빈 모) 4(110), 윤명남(#54 이지호 모) 15(240), 홍성은(#54 홍동민 부) 3(231), 서완수(#55 서지찬 부) 4(70), 유현구(#55 유경은 부) 2(126), 김종기(#56 김남규 부) 2(40), 김왕기(#56 김대웅 부) 10(180), 고경옥(#56 최현준 모) 6(51), 송학빈(#56 송용준 부), 5(55), 윤재룡(#56 윤석환 부) 10(100), 정희숙(#56 배우희 모) 2(111,110)

### ▶ 재학생(4학년/57기) 학부모(입금자 성명)

강석근, 강혜영, 구미라, 김정남, 김근택, 김순말, 도연정, 박경석, 박동현, 심영선, 양내석, 오유미, 윤광원, 이윤주, 임승찬, 정재현, 지미리아, 한성희, 허강우

※ 개인 기부현황은 발전기금 홈페이지([www.kaayf.or.kr](http://www.kaayf.or.kr)) 내 기부 내역에서 확인 가능.

### ■ 졸업생(개인) 참여현황('20.12.23~'21.2.28기부명단)

- ▶ 1기 김용하 4(138), 남훈조 2(1,261), 민석식 12(113), 임관택 2(74), 조운 12(109), 최이환 2(76)
- ▶ 4기 임상기 10(104) ▶ 5기 신호철 10(100)
- ▶ 9기 권영호 15(300), 김현기 6(1,163), 윤지환 4(124), 최병학 5(1,205)
- ▶ 13기 문성묵 30(180)
- ▶ 14기 김종환 2(50), 안호 5(1,790), 이순진 20(730), 이용진 10(220), 하병욱 1(363) ▶ 15기 김성연 2(519)
- ▶ 16기 원홍규 10(290), 이종우 3(154), 신수철 12(53), 황병태 2(303)
- ▶ 17기 박종진 30(216)
- ▶ 18기 구연덕 3(123), 금용백 6(552), 변윤웅 10(200), 이웅우 3(88)
- ▶ 19기 이경희 3(167), 이종형 6(235), 이창호 6(558), 홍성식 2(189)
- ▶ 20기 김윤희 3(61), 박권순 3(142), 서진호 5(300), 서정열 6(471)
- ▶ 21기 신철수 54(1,076)
- ▶ 22기 권순태 2(46), 김민수 15(40), 신대호 10(83), 이진성 2(254), 정경호 2(38), 조태환 2(13), 천병규 10(410), 홍성덕 10(201)
- ▶ 23기 김창수 4(228), 김태일 2(224), 배요식 2(236), 신영찬 2(66), 오승욱 6(253), 정철재 4(124), 최순환 1(1)
- ▶ 24기 박종만 4(40), 권근락 4(272), 권오봉 3(208), 김도협 2(226), 김지영 2(509), 남용구 2(265), 모경원 2(221), 문기현 5(99), 박세철 2(64), 방성대 2(75), 안은준 3(89), 이문희 2(89),

- 정정현 2(188)
- ▶ 25기 김남용 1(127), 문봉성 2(146), 이종현 2(45), 장광선 6(360), 장무수 2(43), 전창호 10(180), 전희준 2(300), 조재희 2(117), 홍은표 3(198)
- ▶ 26기 고창준 10(220), 서채원 4(7), 신창대 3(14), 신충인 6(187), 양성안 3(7), 유근환 2(29), 이덕우 3(121), 이완주 4(119), 이태인 4(50), 임우영 2(238), 장용민 3(117), 함윤식 1(1)
- ▶ 27기 김덕중 2(62), 김성오 4(18), 김용범 4(8), 김지덕 2(16), 김호복 8(233), 석수열 2(39), 안병욱 2(163), 원희문 10(215), 이희순 2(233), 전태환 10(600), 정월균 2(38)
- ▶ 28기 권승영 1(22), 권양철 2(102), 김진길 2(74), 김창현 3(160), 박기수 2(85), 박용섭 4(161), 서청수 2(166), 유정일 2(31), 윤석찬 3(13)
- ▶ 29기 김강식 2(239), 김용식 2(68), 김태영 4(18), 박성훈 2(147), 박태웅 2(126), 이상일 2(182), 이규구 2(109), 임성호 2(158), 최영태 2(101), 최인섭 2(120), 현태식 2(144)
- ▶ 30기 김종권 2(78), 김효성 2(38), 남진오 2(49), 이병길 2(13), 이진 2(143), 임상달 2(113), 주경호 2(107), 홍상범 2(31), 함민호 2(94)
- ▶ 31기 권동호 4(48), 김민식 4(86), 김영태 2(175), 김희엽 2(220), 염향수 2(130), 이재춘 2(204), 이훈복 2(42), 전경인 2(27), 최대집 2(40)
- ▶ 32기 김화용 2(107)
- ▶ 33기 고희용 2(27), 김남식 2(154), 김상선 4(137), 김성수 2(223), 김현규 4(380), 남석진 2(132), 노일 6(146), 사인우 10(131), 안경일 2(229), 안준영 6(110), 이정표 6(59), 조재봉 2(104), 홍종원 2(24)
- ▶ 34기 권성진 2(125), 김기수 2(175), 김운성 3(39), 김홍식 6(417), 이무이 2(398), 임창훈 2(75), 정문민 2(197), 정창근 2(100), 정훈환 2(51), 조수창 2(17), 홍영기 2(19)
- ▶ 35기 김경철 2(3), 김병수 3(75), 김수열 3(63), 박병준 6(296), 박상우 1(86), 박상천 2(15), 박시근 2(177), 송명성 4(50), 이문희 2(143), 임창규 2(101), 장춘삼 2(138), 전성광 2(33), 정영석 2(100), 정호준 4(82), 황재혁 3(22), 하중수 2(18), 한종훈 4(33)

▶ 36~57기 기부현황은 [www.kaayf.or.kr](http://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에서 확인바랍니다. **지면제한으로 부득이 모든 기부자 명단을 기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양해 바랍니다.**

2021년 학교발전기금 사용예산 현황		
구분	항목	편성(원)
장학금지원 (1억 2,800만원)	해외건학장학금	113,000,000
	동기유발장학금	15,000,000
일반학/군사 교육지원 (3,000만원)	예비생도교육	6,000,000
	석좌교수운영	12,000,000
	우수강사획득	3,000,000
	군사훈련 위문	7,500,000
	학술·체육경연대회	1,500,000
우수생도모집 (1억 1,430만원)	미디어콘텐츠개발	36,000,000
	사이버홍보	30,000,000
	옥외조명광고	25,000,000
	고교홍보활동	17,000,000
	홍보우수자포상	3,000,000
	학교카렌다제작	3,300,000
목적사업추진필수비 (6,000만원)	법무세무, 자산관리, 이사회, 인건비	50,400,000
	기금회 특선전비, 기부자예우관리	8,300,000
	우편료, 사무비, 보험 및 공과	11,700,000
예비비		10,000,000
<b>2021년사업비계</b>		<b>352,700,000</b>

## 2021년 학교발전기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육군3사관학교 발전재단은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상황에서 학교의 안전을 고려해 2021년 정기이사회를 대구인 터볼고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박종진 이사장 등 15명의 교외 및 재교입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예·결산, 2021년 예산편성, 정관개정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사회에서는 청년인구감소, 병 복무기간단축,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적극 지원하고자 생도모집홍보 예산의 과감한 증액을 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2021년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사업 추진예산은 생도모집홍보비 증액 및 동기유발장학금 신설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약 1억 3천만원을 증액한 3억 5,270만원(세부내용 표1.참조)으로 확정하여 학교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한다.



## 생도56기, 학교발전기금 5억6천만원 약정기부!

3월 2일 졸업 및 입관식을 가진 56기 생도들은 5억 6천만원(동기회 3,000만원, 개인약정 5억 3,000만원)의 기부증서를 졸업식장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여 참석한 학교간부 및 후배생도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제 힘차게 야전으로 향하는 56기 동기회(회장 송민재 소위)의 승승장구를 기원하며 모교사랑의 마음이 계속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 3사55기 동기회, 학교발전기금 3천만원 기부약정!

지난해 졸업한 55기 동기회는 코로나19로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차질 없는 학교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500만원씩 6년간 3천만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동기회장(이승환 중위)이 직접 재단으로 알리와 기금조성 참석 시기에 큰 힘이 되었다.



**발전기금 참여 안내**

- 입금계좌**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기부자명은 띄워쓰기없이 6자 이내로
  - 졸업생 → (예시) 00기김삼사, 우인/단체 → 입금 후 재단연락
  - 재학/졸업생 부모 → (예시) 58박조국부, 58이충성모/00홍길동부(숫자는 자녀 기수)
  - 세금정산용 영수증 발급 및 기타문의는 재단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054) 330-3180, 3182



**“참여자의 소중한 정성은 학교발전과 국방우수인재 양성에 큰 힘이 됩니다”**